

#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급성 발작)

진료실 문밖이 갑작스러운 소음으로 왁자지껄하더니 곧 이어 “응급 환자이니 나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직원의 요청이 있었다.

문밖은 환자와 함께 온 10여 명의 보호자들로 온통 왁자지껄하였다. 방금 실려 온 환자는 들 것 위에 담요로 둘둘 말려진 채로 눕혀져 있었는데 그 위를 결박대로 서너 번 이상이나 묶어 그 난동이 심한 상태임이 역력했다. 그러고도 몇몇 장정들이 그 위를 꼭 누르고 있었다.

끈을 풀어 달라는 말에 “곤란한데…”하며 말꼬리를 흐리던 장정들은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결박대를 풀어 보였다. 그러자 거기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사탄아 물러가라!”며 샷대질과 함께 고향을 치며 통겨지듯 나왔다.

병원의 복도는 난장판이 되었고 그녀는 직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여 응급 입원이 되었다. 그녀는 그러한 도중에도 어깨에 걸친 담요를 서너 번은 더 집어던졌다.

그녀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도중 갑작스레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설교 중이던 목사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며 샷대질과 함께 심한 난동을 피우다 신도들에 의해 담요로 ‘둘둘 말리’가 되어 실려 온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강제로 결박(Restraint)된 후 3앰플 이상의 정온제를 맞고서야 수면에 들어갔다.

그 환자는 23세의 미혼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어떤 청년과 2년 여 동안 연애를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그와 결별한 후 직장을 그만두고 밤낮으로 교회에만 열심히 나가며 지내 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 한 것은 몇 달 전쯤부터였다. 그녀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젊은 여자에게 섬뜩한 눈빛을 하고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다시 한 번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경고 조의 말을 하여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녀는 예의 ‘홀러덤 사건’이 터지기 사흘 전부터 거의 밤낮을 새우며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며 증얼거리곤 했다는 것이다.

약 이틀 이상을 거의 잠에 취해 있던 그녀는 사흘째 되던 날부터 생기를 찾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약 2년 동안 사귀던 남자와 ‘인생관의 차이’로 헤어진 후 몹시 힘들어했었던 일하며, 그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 하고 몇 날 며칠 고민했던 일, 그로 인해 신경이 몹시도 날카로워져 있었던 나날들을 하나하나 회상해 냈다.

그때 즈음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쫓아다닌다는 좋지 않은 느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더니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누가 엿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몹시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그런 잡스런 생각들을 떨쳐 버리기 위하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렬히 기도하였는데,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듯하더니 그 뒤에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다른 여자들이 자신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비난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 등이었다. 주로 그 내용은 “몸매도 좋지 않은 것이 남자들 앞에서 꼬리 친다”는 것이었다.

그런 환청이 계속되던 중 그녀는 우연찮게 그 여자 신도들이 목사님과 뭔가를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목사님도 그들과 한패일지 모르겠다. 내가 속았다. 그들은 사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몹시 괴로웠다고 한다.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들에게 진실한 네 모습을 다 보여 주어라!”

처음에는 몹시 놀랍고 두려웠으나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왔다. 며칠을 잠 못 자고 고민하는 동안 그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다.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잘 하는 바람에 그 당시 경험이 일천하였던 필자는 “이 환자는 곧 좋아지겠다”라는 선부른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그 며칠 뒤부터 보라는 듯이 일이 뒤엎켜 버렸다. 그녀가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고 뛰어다녔다는 기억은 그녀의 통찰력(洞察力)을 넘어 비통한 자기 학대(自己虐待)로 이어졌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그 상태는 어느 누구라도 도움을 주거나 통제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갖은 역경과 심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 겨우 그 상태는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예상 못 한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그 상태에서 회복될 무렵 놀랍게도 그녀의 정신 상태는 입원 당시의 것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내 생각은 옳았다. 나는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맑은 정신 상태 하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깊은 상처를 그녀는 다시금 ‘증상의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 타협해 버린 것이었다.

그 후로 그녀의 증상은 더 좋지 않은 만성적 경과를 밟으며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 버렸다.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라는 말이 그토록 실감난 적이 없었다.